



7월 금리모멘텀과 실적모멘텀 부각 예상

은행 Weekly | 2026.6.29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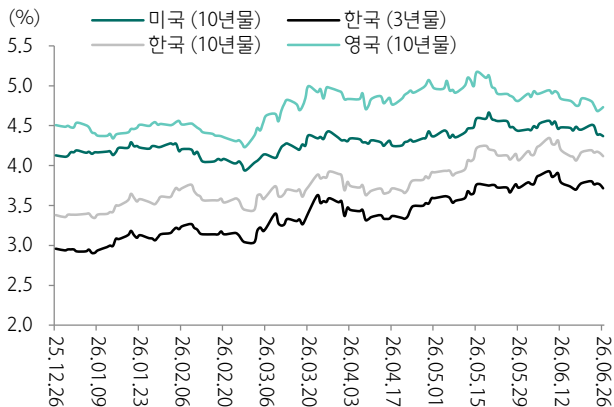
- 카카오뱅크는 마스텐캐피탈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가속화. 할부금융을 포함해 캐피탈업 내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기업금융, 투자금융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방침
- 은행이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떠넘기지 못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7월부터 일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0.21%p 낮아질 예정. 다만 같은 시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금리 인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지난달 4대 시중은행 ETF 판매액은 14.7조원으로 4월보다 54% 급증했는데 판매수수료를 약 1%를 적용하면 1,300~1,470억 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셈. 은행 ETF 수수료는 0.1%인 증권사보다 높지만 증장년층이 은행 창구에서 대면거래 선호
- 올해 누적 은행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이 견인.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따른 정책성 자금 수요가 특은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며 채권시장 영향력도 시중은행채에서 특은채로 이동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6월 26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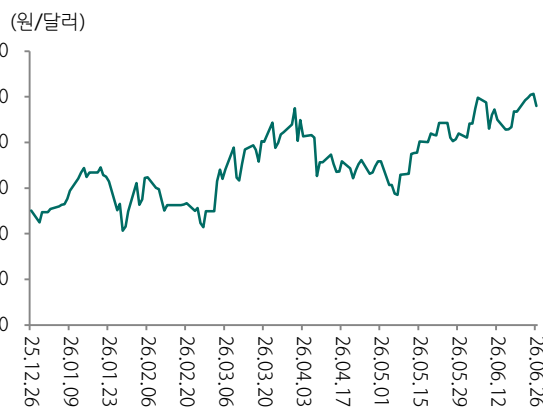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99	9.0	22.2		6,885,382.2	-7.1	2.2	54.6	99.6	-3,977.7	-522.4	-21,154.4	24,260.0
은행	0.61	7.1	8.9	0.63	184,215.2	-8.5	-4.9	-6.3	12.1	-197.0	4.8	-2.5	184.4
KB 금융	0.80	8.1	10.2	0.78	52,954.9	-5.7	-2.9	-1.9	19.7	-41.3	0.6	-12.6	54.0
신한지주	0.69	8.5	9.3	0.66	43,478.3	-9.2	-3.6	-2.0	19.1	-45.7	19.8	5.0	41.5
우리금융	0.51	6.5	8.2	0.52	20,811.1	-8.7	-7.5	-15.6	1.3	-53.8	-1.9	29.6	18.3
하나금융	0.61	7.0	9.2	0.63	30,098.1	-11.2	-7.3	-0.6	16.6	-35.6	-0.3	0.3	33.8
기업은행	0.42	5.6	7.6	0.55	15,677.4	-8.3	-4.1	-16.5	-6.2	-13.1	-5.9	-23.9	28.0
BNK 금융	0.43	5.7	7.7	0.53	4,928.0	-10.5	-7.4	-15.0	0.1	5.0	-3.6	-8.7	3.7
iM 금융	0.38	5.2	7.6	0.47	2,542.7	-6.7	-12.8	-10.4	1.8	-6.3	-1.7	5.1	2.0
JB 금융	0.65	5.8	11.9	1.00	4,301.6	-12.5	-6.2	-26.5	-10.9	-6.2	-2.2	2.8	3.0
카카오뱅크	1.32	16.4	8.3	0.72	9,423.1	-10.8	-9.6	-19.9	-8.6	-13.8	-0.6	-3.7	17.1
삼성카드	0.58	8.3	7.2	1.97	5,335.3	-7.1	-1.7	-16.3	-17.6	-7.3	-1.8	3.2	3.9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8.5% 하락해 KOSPI 하락률 7.1%보다는 소폭 초과하락. 반도체업종의 주가 변동성 확대로 KOSPI도 큰폭의 롤러코스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주는 KOSPI 급락시 덜 빠지고 급등시에는 덜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수급상 특징적인 요인은 외국인이 KOSPI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거의 순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폭 은행주 매수에 가담했다는 점임. 개인투자자들의 주간 단위 은행주에 대한 2,000억원에 가까운 순매수는 몇개월내 처음 발생한 현상.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 이란과의 종전 기대감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큰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와 더불어 그동안 금리가 큰폭 상승한데 따른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8%로 임계점으로 인식되던 4.5%를 크게 하회하며 한주간 8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4.10%로 8bp 하락. 국내 국채금리도 하락. 3년물과 10년물은 각각 3.72%와 4.12%로 각각 6bp와 5bp 하락했고, 1년물 국채금리는 3.29%로 한주간 1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주중 1,549원까지 상승하다가 하락. 최근 금요일마다 장마감 직전 원/달러 환율이 큰폭 하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에 당국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전주에도 결국 종가로는 1,535.8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4.8원 상승에 그쳤음. 지난주 외국인은 KOSPI를 21.2조원이나 대량 순매도한 반면 은행주는 30억원 순매도에 그쳐 은행주 매도는 거의 없었으며, 국내 기관은 KOSPI를 3.8조원 순매도한 가운데 은행주도 2,000억원을 순매도. 현재 KB금융만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최근 국내 기관은 이전과 달리 은행주를 순매도로 대응 중. 개인투자자들은 지난주 KOSPI를 약 24.3조원 순매수한 가운데 은행주도 1,840억원을 순매수해 은행주 순매수세 전환이 특이점이었음
- 지난주에는 KB금융과 iM금융의 주가가 5.7%와 6.7% 하락에 그쳐 업종내에서 가장 선방. KB금융 주가 선방에는 업종내에서 홀로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 가담이 주요 배경으로 추정. iM금융은 최근 상대적으로도 주가가 더 크게 약세를 보인데 따른 영향인 듯. 반면 J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12.5%와 11.2% 하락해 수익률이 가장 저조
- 6월 25일 카카오뱅크는 마스틴캐피탈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마스틴캐피탈의 2025년말 총자산은 524억원(대출채권 296억원, 금융리스자산 141억원), 총자본은 211억원. 2025년 연간 실적은 -23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음. 인수가격은 241억원으로 6월말 총자본이 2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PBR 기준 약 1.2배에 인수한 셈.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240억원 정도에 캐피탈사 License를 산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인해 신규 라이선스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라이선스 취득 지연으로 제휴신용카드 서비스만 실시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없는 M&A를 통한 자회사 편입이 대안이었을 것으로 보임. 마스틴캐피탈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자회사로 편입시 조달비용 하락 효과가 기대되지만 2025년말 기준 장기차입금이 159억원에 불과해 영향은 크지 않을 듯. 한편 카카오뱅크는 캐피탈사 인수로 오토론 진출 등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플랫폼 관련 수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 전망. 다만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어느정도의 규모로 수익화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 과거 라이선스만 인수해서 자본을 추가 투자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다른 금융사들의 경우 의미있는 개선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 물론 카카오뱅크의 고객 기반과 플랫폼 경쟁력은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이기도 함
-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반도체 등 주도업종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도 업종간 순환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상승시 주도업종만 상승하고 조정시 다같이 하락하는 분위기. 이는 반도체업종의 이익증가율이 타업종대비 워낙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업종의 이익증가율이 양에 차지 않기 때문. 반도체가 꺾이면 장은 아예 없다는 인식이 주요 배경인 듯. 다만 은행주의 경우 피벗 국면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예상되는 7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금리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7월말 어닝시즌에서도 KB금융, 신한지주를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 주도업종 밖에서는 관심을 가장 높여야 할 업종으로 판단.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익증가율이 반도체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업종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보완주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음. 현 은행 평균 PER은 약 7배 수준임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20,000원), 신한지주(매수/TP 135,000원)

- KB금융의 경우 증권자회사 이익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 순익 2조원 상회 가능성 기대. 외국인의 국내 은행주에 대한 스탠스 변화시 큰폭 반등 가능할 듯
- KB금융과 더불어 신한지주도 2분기 실적 모멘텀 가장 양호할 전망. 손실사건 RWA 배제 승인시 2분기 CET 1 비율이 13.5%를 상회할 수 있을 듯. 분기말 당국의 환율 관리를 예상하지만 만약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들 대비 영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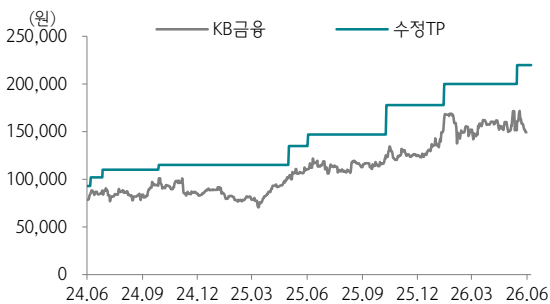
Global Peer Table

(2026년 6월 26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99	9.0	22.2		6,885,382.2	-7.1	2.2	54.6	99.6
은행	0.61	7.1	8.9	0.63	184,215.2	-8.5	-4.9	-6.3	12.1
KB금융	0.80	8.1	10.2	0.78	52,954.9	-5.7	-2.9	-1.9	19.7
신한지주	0.69	8.5	9.3	0.66	43,478.3	-9.2	-3.6	-2.0	19.1
우리금융	0.51	6.5	8.2	0.52	20,811.1	-8.7	-7.5	-15.6	1.3
하나금융	0.61	7.0	9.2	0.63	30,098.1	-11.2	-7.3	-0.6	16.6
기업은행	0.42	5.6	7.6	0.55	15,677.4	-8.3	-4.1	-16.5	-6.2
BNK금융	0.43	5.7	7.7	0.53	4,928.0	-10.5	-7.4	-15.0	0.1
iM금융	0.38	5.2	7.6	0.47	2,542.7	-6.7	-12.8	-10.4	1.8
JB금융	0.65	5.8	11.9	1.00	4,301.6	-12.5	-6.2	-26.5	-10.9
카카오뱅크	1.32	16.4	8.3	0.72	9,423.1	-10.8	-9.6	-19.9	-8.6
삼성카드	0.58	8.3	7.2	1.97	5,335.3	-7.1	-1.7	-16.3	-17.6
미국									
S&P 500	5.00	21.5	21.9	5.69	65,752.6	-1.9	-2.1	13.9	7.4
은행	1.66	13.2	12.5	1.08	2,249.4	2.1	9.1	16.2	4.9
Wells Fargo	1.50	12.9	12.8	0.99	256.6	2.0	8.2	6.8	-10.0
JPM	2.44	14.7	17.2	1.28	881.7	1.2	7.3	13.4	2.1
CITI	1.20	13.1	9.7	0.71	241.8	-0.9	11.7	26.7	21.5
BOA	1.44	12.9	11.7	0.96	410.8	3.0	11.5	20.6	5.2
US Bancorp	1.52	11.9	13.0	1.16	94.9	4.8	10.3	19.2	14.1
PNC	1.62	13.0	12.7	1.26	98.4	5.6	11.0	20.2	17.4
BB&T	1.02	11.1	9.4	1.04	62.9	4.5	3.7	13.5	2.6
중국									
상해A주지수	1.40	14.3	10.0	1.41	64,259.7	-1.3	-2.3	4.4	1.5
은행	0.64	6.9	9.4	0.68	11,413.6	-1.6	-2.8	-2.1	-11.5
공상은행	0.62	6.9	9.1	0.68	2,425.7	-0.1	-0.4	-1.4	-9.8
건설은행	0.68	7.4	9.6	0.72	1,928.4	-1.4	-5.1	3.6	5.4
농업은행	0.74	7.6	9.8	0.59	2,118.1	-2.8	-3.6	-3.1	-19.4
중국은행	0.64	7.7	8.5	0.64	1,741.0	-0.3	-2.5	3.2	0.5
교통은행	0.47	6.1	7.8	0.62	558.8	-2.5	-1.4	-5.1	-10.2
초상은행	0.76	6.0	12.9	1.13	920.5	-3.4	-2.7	-9.0	-14.5
일본									
NIKKEI	3.04	24.1	12.4	4.34	1,040,947.4	-2.7	6.7	30.3	37.8
은행	1.41	14.7	9.4	0.47	132,164.1	-1.1	4.6	20.8	31.5
Mitsubishi UHF	1.72	16.4	10.8	0.61	38,510.7	-1.0	6.0	22.5	30.2
Sumitomo Mitsui Financial	1.56	15.4	10.8	0.61	24,461.5	-1.4	5.4	23.7	26.8
Mizuho	1.73	16.0	11.4	0.43	19,039.4	-1.1	5.9	23.8	36.7
Sumitomo Mitsui Trust	1.25	13.8	9.3	0.37	4,173.3	-1.5	5.5	19.6	25.0
유럽									
MSCI Europe	2.37	16.0	14.3	1.76	15,315.9	0.1	1.7	11.6	7.7
은행	1.49	11.1	13.5	0.73	2,065.8	-0.7	6.1	23.4	12.4
HSBC	1.73	11.4	15.4	0.84	244.5	-0.6	2.6	19.4	21.2
Santander	1.62	11.6	13.9	0.76	173.8	0.2	10.8	26.4	17.5
BNP Paribas	0.92	8.7	10.8	0.45	111.4	-0.5	9.7	27.1	25.2
Credit Agricole	0.72	7.8	9.6	0.28	53.0	-1.0	6.9	17.5	-0.2
Deutsche	0.83	8.9	9.7	0.47	56.3	-5.3	5.9	20.8	-11.1
Unicredit	1.73	10.5	17.1	1.26	116.2	-3.1	4.9	29.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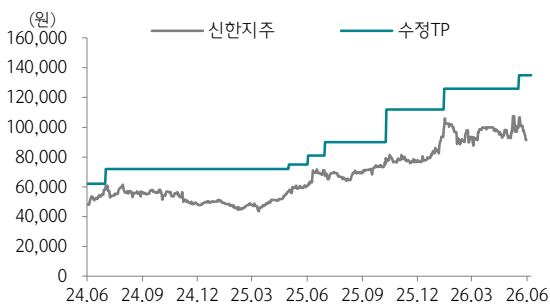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12	BUY	220,000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신한지주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15	BUY	135,000		
26.2.11	BUY	126,000	-23.65%	-14.68%
25.11.7	BUY	112,000	-28.27%	-12.59%
25.7.28	BUY	90,000	-22.66%	-12.00%
25.6.30	BUY	81,000	-15.96%	-11.36%
25.5.29	BUY	75,000	-20.53%	-18.67%
24.7.29	BUY	72,000	-27.80%	-14.72%
24.3.21	BUY	62,000	-23.07%	-6.45%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7%	2.73%	0.00%	100%

* 기준일: 2026년 6월 26일